

화순에 전국 첫 '다국적 공무원' 났다

군. 다문화 전담팀 결혼이민자 임기제 공무원 임용 베트남 등 5개국 출신 채용... 위기가정 발굴 등 호응

화순군에 전국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자국민 전담팀이 가동돼 호응을 얻고 있다.

다문화가정 증가 추세에 맞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일본 출신 5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화순군에는 외국인 인구가 522세대 2037명에 달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이 22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87명, 필리핀 69명, 일본 63명, 캄보디아 47명, 태국 11명, 몽골 7명 등이다.

농촌인력 부족으로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현저적 적응에 실패해 빛어지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화순군은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문화팀을 신설해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5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베트남 출신 정금화(40)씨, 필리핀 출신 마리벨(35)씨, 캄보디아 출신 김지민(30)씨, 중국 출신

박춘란(50)씨, 일본 출신 하나자와 가요(53)씨 등이 새내기 외국인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통·번역 서비스부터 애로사항 청취까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자조모임 등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

다문화팀 신설에는 민선 8기 구복규 화순군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작용했다.

그동안 다문화팀은 5건의 위기가정을 발굴해 긴급지원에 나섰으며 통역과 일자리 제공, 국적 취득, 결혼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행정에 나서고 있다.

화순군은 당초 4명을 채용했다가 이달 들어 중국 국적 출신 팀원 1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조직도 확대했다.

다문화팀은 특히 한국어 안내장과 자국어 번역본 등 2개의 안내장을 동시에 올리는 형태의 SNS를 주요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화순군 다문화가족 자국민 전담팀 소속 공무원이 화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담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지난 2월 다문화가족 대학 진학과 취업 지원을 위해 동강대학교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외국 출신으로 구성된

다문화팀을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 추월산 용마루길 보수 마치고 다시 개통

담양의 대표 관광명소로 꼽히는 추월산 용마루길이 시설물 보수공사를 거쳐 다시 개통됐다.

담양군은 지난해 용마루길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월산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비내산 방향으로 조성된 탐방로 3.9km 중 노후 구간 0.8km를 전면 교체하고, 목교 기둥 재도색 등 시설물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 담양호 수변길을 담양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용마루길을 잇는 출렁다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담양호 수변길 조성사업을 통해 담양호 전체를 수변길로 연결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배가 안 열려요” 냉해 속출

1400ha '착과 불량' 피해 재해보험 신청 2400건 10가구 중 3가구 미가입

지난달 나주 배 농가 대부분이 냉해 피해를 봤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10가구 가운데 7가구만 가입해 농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월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 발생한 이상 저온으로 인해 지역 배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같은 기간 2400건에 달한다. 나주에서는 1947가구가 배 농사를 짓고 있다.

이들 배 농가는 모두 1400ha에 달하는 면적에서 나무에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착과 불량' 등의 손해를 입었다.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 배 농장에서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건 지난달 초순 발생한 이상 저온 탓이다.

올해 3월에는 이상 고온이 발생해 과수 개화가 앞당겨진 상태에서 4월8-9일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져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나주에서는 지난달 4일 이후 인공 수분(꽃가루받이)한 농가에서 저온에 따른 착과 불량으로 발생했다.

인공 수분할 때는 이틀에서 사흘간(48-72시간) 15-25도 상온이 이어져야 수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낮은 지대와 하천 주변, 바람이 잘 불지 않는 과원에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나주시는 내다봤다.



윤병태(오른쪽) 나주시장이 지난달 중순 냉해 피해를 본 금천면 나주 배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하지만 나주 배 농가 1947가구 가운데 73.7%인 1435가구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 면적은 1497ha이다.

나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나주 배 농가에 대한 냉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피해 복구 계획을 세우고 전남도에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달 말 금천면·왕곡면 배 농가 현황을 찾았고, 이달 1일에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금천면 배 농가에서 냉해 피해를 점검했다.

나주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 지원을 현실화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 예방시설 보조금 지

원을 높여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선화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주무관은 "열매를 숙이내는 시기를 앞두고 열매가 없는 배나무를 보니 냉해 피해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파악하고 농식품부, 지역 농협과 지속해서 논의하며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나주에서는 1809ha 면적에 4만 7127t의 배가 생산됐다. 이는 전년(3만3636t)보다 40.1%(1만3491t) 급증한 규모였다. 지난해에는 저온 피해가 적고 태풍 피해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야간 경관 조성

전남도 공모 선정...10억 확보 꽃길 조성·예술가 작품 전시도

장성호 수변길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한층 풍성해질 전망이다.

장성군에 따르면 '전라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장성호 수변길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비 포함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장성군은 수변 데크길에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계절꽃 피어나는 '향기나는 수변길'도 만들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장성호 수변길은 주말마다 3000-4000명이 찾는 장성의 대표 관광지다. '내륙의 바다' 장성호를 감상하며 데크길을 걷는 여행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장성호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은 출렁길, 오른쪽은 숲속길로 불린다. 출렁길은 옐로우출렁다리와 황금빛출렁다리가 있어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간단한 음료나 간식을 살 수 있는 매점도 운영한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코스로, 걷는 데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된다.

우측 숲속길은 숲과 어우러진 호수 전경이 색다른 감동을 안긴다. 40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어 가볍게 장성호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꾸준한 방문이 이어지는 장성호 수변길이지만 저녁이 되면 급세 인적이 드물어진다. 인근 식당이나 카페를 찾는 발길도 줄어든다. 장성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변길에 환상적인 야간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관광 자원적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색



장성호 수변길이 전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장성호 전경. <장성군 제공>

다른 변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측 숲속길에는 '향기로운 수변길'과 수변정원도 조성한다. 봄에는 진달래, 여름엔 수국, 가을에는 장성 백양사에서 자생하는 백양화와 상사화가 식재된다.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도 전시해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강진군, 카페에 '하멜촌 커피' 보급 나서

12일까지 신청서 접수

강진군이 하멜촌 커피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강진군은 지난해 개발한 '하멜촌 커피'를 관내 카페에 보급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하멜촌 커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

고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육성 및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관내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있는 카페면 신청 가능하다.

강진군은 지난 4월 특허청에 하멜촌 커피 상표 등록을 완료했고 커피 판매를 위한 필수 요건인 '품목제조등록'도 완료한 상태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하멜촌 커피 로고와 가격표를 제공 받아 오는 6월부터 커피와 드립백을

판매할 수 있다.

하멜촌 커피는 은은하게 올라오는 산미에 깊은 고소함이 특징이며, 후불호가 갈리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준범 강진군 문화관광실장은 "하멜촌 커피는 강진에서 아쉽게 개발한 커피로 오직 강진에서만 맛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강진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남도는 맛있다...음식축제 속으로

막힌 코가 뻥~ 영산포 흥어

5~7일 흥어축제...요리교실 등 공연·체험 다채

막힌 코가 뻥 뚫리는 알싸한 맛을 가진 남도 대표 음식 속성 흥어의 대항연이 흥어의 본고장 나주 영산포에서 펼쳐진다.

영산포 흥어 축제는 나주지역 최장수 음식문화축제로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3년 만에 열린다.

'흥어 맛보러 오소'라는 정감 가는 사투리를 주제로 600년 전통 영산포 흥어만이 가진 '삭힘'의 미학을 3일 간 다채롭게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기존 영산강 둔치 공원 일대에서 흥어 식당·상점이 줄지어있는 흥어의 거리로 주 무대 장소를 옮겨 상인들과 주민, 관광객이 한 곳에서 어우러져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다.

흥어를 재료로 조리하면, 만두, 어묵 샌드위치, 커피 등 이전에는 없던 독특한 K-푸드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세대를 흥어 애호가를 선발하는 '흥어킹을 찾아라', 흥어를 초특가에 구매할 수 있는 '흥어 깜짝경매', '흥어 예쁘게 썰기', '흥어 탐 샅기' 등 관광객 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이 3일 간 축제 현장에서 진행된다.

축제 둘째 날 오후 6시부터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가수공연(홍진주·



'제19회 영산포 흥어축제'가 5일 영산포 흥어의 거리 일원에서 개막 7일까지 열린다. 흥어 예쁘게 썰기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 <나주시 제공>

양진원)과 '5060 K-POP 흥어 디스코 파티'가 열릴 계획이다.

가장력에 흥과 끼를 겸비한 나주시민 노래자랑 준결승, 결승무대는 5일과 7일 각각 열린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흥어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속성 흥어는 전라도의 대표 음식"이라며 "맛의 깊이는 물론, 건강에도 탁월한 보양식인 영산포 속성 흥어 요리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살이 통통! 장흥 키조개

4~7일 키조개 축제...5일 제암산 철쭉제

장흥군이 주말 연휴를 맞아 제암산 철쭉제와 키조개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키조개 축제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안양면 수문항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갯벌 생태체험, 바지락 캐기, 키조개 까기·썰기 대회, 키조개 생태관찰, 만들기 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운영한다.

축제기간 매일 오후 6시 메인 무대에서는 초대가수 공연 '열린 무대'가 펼쳐진다.

특별한 키조개는 5일이 되면 살이 통통하게 차고, 맛과 영양이 풍부해 진다.

장흥 키조개의 주산지인 안양면 앞 바다는 다양한 미생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개펄과 모래가 섞여있어 키조개 생육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키조개는 그 자체로도 담백함이 일품이지만, 한우삼합, 전, 탕수육, 회무침, 죽 등 다양한 요리로도 맛볼 수 있다.

축제 기간 중 행사장을 찾으면 다양한 키조개 요리와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키조개축제가 한창인 5일에는 제암산 철쭉 평원에서 제33회 장흥 제암산철쭉제가 열린다.



장흥 키조개축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안양면 수문항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축제 모습. <장흥군 제공>

다.

제암산 철쭉평원에는 30년 이상된 철쭉이 100만㎡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매년 5월이면 6km 길이의 이 철쭉평원은 연분홍빛으로 물든다.

제암산 철쭉은 흰색 품종이 없어 분홍색 꽃이 하늘에 닿아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장흥군 관계자는 "주말 장흥에서 연분홍 철쭉을 눈으로 즐기고, 맛있는 키조개를 맛보시기 바란다"며 "이번 연휴는 가족과 함께 장흥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